



우석대 교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는 5일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제자사랑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박진희(간호학과) 교수장학회장, 이정로 학생복지팀장, 장학금 수혜학생 등이 참석했다.
박 총장은 조기영(한의학과 4년) 학생의 3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노준 총장은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새겨 학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희(간호학과) 교수장학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는 1981년부터 전체 교수들이 제자사랑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장학금을 조성, 해마다 11명에게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진안 주천행복나눔센터 ‘찾아가는 행복마을’ 운영

진안군 주천면 행복나눔센터는 지난 5일 구암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주천 주민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호선)에서 주천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단위 복지 및 여가활용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은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과 더불어 바쁜 농시철도 쉴 틈 없는 청·장년층을 위해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호선 이사장은 “마을의 주민복지와 여가활용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천면 행복나눔센터는 진안군과 주천주민 사회적협동조합간 업무협약을 맺어 2025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천 인문학교실 △스코프인 골프 교실 △컴퓨터 교육 △앞차마 두른 남자들(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 영경퀴 텃밭문화축제 고택문화체험관 개최

정읍시가 주최하고, 시민뿐만 수령자연식생활문화원(대표 김현희)이 주관한 영경퀴 텃밭문화축제가 다가오는 7일 정읍시 산외면에 위치한 고택문화체험관 ‘스테이풀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약용자원인 영경퀴를 활용하여 다양한 건강식품을 선보이며 영경퀴를 비롯하여 텃밭 작물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인 영경퀴 요리경연대회에서는 행사장에 방문한 시민들이 함께 심사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오김을 민족사킬 수 있는 체험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영경퀴 발효체험, 기왓장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김명관 고택 해설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MG새마을금고, 김제장애인복지관 등에 성금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 MG 새마을금고(이사장 조승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김제장애인복지관(관장 박선태)과 김제제일사회복지관(관장 안정한)에 각각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제4회 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평소 MG새마을금고는 지역상생에 부합하는 협력사업과 봉사활동,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조승곤 이사장은 “우리 함께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는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90주년’

정읍서 추념식·학술대회…애국정신 기리고 독립운동 활약상·인간적인 면모 재조명

올해는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구파 백정기 의사(1896~1934) 순국 90주년이 되는 해다.

백의사는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대한독립운동사에서 ‘삼의사’로 불리는 인물. 뜻깊은 해를 맞아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정읍에서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지난 5일 오전 10시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유성엽 회장) 주최로 정읍시 영원면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이학수 시장,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주영선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유성엽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수원백씨 종친회 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에 이어 기념사 및 추모사 낭독과 현화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추모식에서 “백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한다”며 “애국선열들의 뜻을 계승하여 시민회합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고, 적극적인 보훈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



여 독립 유공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와 정읍시는 매년 6월 5일 추모식을 갖고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오전 추모식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아흐K로컬콘텐츠 연구소’가 주최·주관하는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90주년 기념 학술회’가 오후 2시, 정읍 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술회가 열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는 최근 여성·특이민원 증가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대응 방안 공유와 고충 민원 업무처리 역량 증진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 교육 내용은 스마트한 민원 응대 스킬 디시례별 특이민원 대응방안 디민원 응대 감정관리법 등으로, 상황별 특이민원 대응 능력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은 “특이민원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더 이상 민원이 아니라 위법행위라며 특이민원 발생 시 부서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직원들도 용기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 행정지원과 김은영 과장은 “특이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웨어러블캡 등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및 피해공무원 심리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 야구부 창단… 초대 감독에 김태원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야구부를 창단했다. 초대 감독에는 김태원 전 LCT원스 투수 출신이 내정됐다.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창단 선언식에는 조희천 총장 외 16명의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김태원 예비감독과 코치진이 함께했다.

5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이날 창단 선언식에서는 야구부 창단에 관한 협력, 인적교류, 학생선수 영입을 위한 기관별 TFT 운영 등을 약속했다.

또한, 순조롭고 효율적인 대학부 창단 절차를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 야구소프트볼 협회, 대한 야구소프트볼 협회와의 구체적인 소통의 창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

이후 고교 야구부 선수를 선발해 올해 창단과 함께 내년부터 대학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원 예비감독은 1986년 MBC 청룡 입단원△1990년 V1 LCT원스 우승 18승 팀 담수경△집실구장 최초 노히트노런 달성△1994년 V2 LCT원스 우승 등 영광스런 선수생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학생 선수 영입에 기대가 되고 있다.

김태원 예비감독은 “창단팀 감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



다”며 “인재 선발, 개별 코칭 등 전문대학 최고의 야구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체육교육지원팀장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현재 잘 갖춰진 대학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경기도자도, 전문 지도자로의 진출 등 다양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체육진흥과, 금구면 농가 일손돕기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지난 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금구면 용전미을에 있는 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온실 상추 비닐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는 “너운 날씨에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적기에 도움이 되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체육진흥과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고,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등과 상호 협약 체결

전주고등학교(교장 라구한)는 최근 창의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군산대, 원광대 전주대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들은 전주고의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선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경험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학교교육 유 학생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학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프로젝트 수업 및 특강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교과연계 체험활동 개발 협업 지원 등이다.

라구한 교장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2022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지역사회의 저력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공공위원장 최훈식, 민간 위원장 나금례)는 지난 4일, 2024 읍면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을 임실험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119인전체험관에서 대표협의체 위원 및 장수군 7개 읍면협의체 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선진경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장수군이 ‘읍면동 스마트 복지인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복지인전 올타임 행복마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생활 속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함양과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보절면, 전동스쿠터 등록제 시행

남원시 보절면은 ‘복지의료용 전동스쿠터 등록제’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보절면 우수 시책 중 하나로, 보절면 거주자 중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25개 각 마을 통별 번호와 소유자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번호판은 측광 배경으로 이간 운행 시 상호 간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대장을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에 각각 보유 관리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소유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실을 최소화하여 사고 처리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번호판은 133개가 배부되고 이후 전동스쿠터를 새로 구매한 소유자를 파악해 추가 번호판을 배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공덕면, 하계 방역소독 9월 말까지 진행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른 기온상승으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및 위생 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방역 소독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덕면 7개리 31개 마을에는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월 2회씩 마을 자체적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주민들은 빈 경통, 페티아워, 잡초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일몰 후에는 매개 모기 및 유해 해충의 활동 범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과 밭, 거리, 물, 하수구, 용당이 등 모기 유충 서식지와 빙집 등 위생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해 퍼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박멸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